

## 《廢都》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에 관한 小考

정은진\*

### 1. 들어가며

《廢都》의 주인공은 유명 소설가인 莊之蝶으로 西安市 4대 문화인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그의 사랑이야기이다. 그는 牛月淸이라는 조강지처를 두고서 唐婉兒·阿燦·柳月과 차례로 밀회를 즐기고 비록 성관계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친구인 汪希眠의 부인과도 사랑을 나눈다. 그 사이 唐婉兒와 함께 도시로 도망 온 周敏이 직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莊之蝶의 과거 연애사를 잡지에 게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莊之蝶은 첫사랑이었던 景雪蔭과의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결국 죽는다.

그런데 莊之蝶과 밀회를 즐기는 唐婉兒, 阿燦, 柳月과 그의 부인인 牛月淸, 그리고 첫사랑이었던 景雪蔭, 오랫동안 莊之蝶에 대한 연정을 품어왔던 汪希眠 부인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唐婉兒는 동네 건달과 바람이 나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시골에서 도시로 도망쳐

---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 수료

나온 여자이고, 阿燦은 별 볼일 없는 남편을 만나 도시 외곽의 동향촌에서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이며, 柳月은 陝北이라는 가난한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올라온 가정부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牛月淸 역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그녀는 유명인사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한참 낮은 唐婉兒·阿燦·柳月보다 문화적 소양이 더 없고, 또 타고난 미모를 가꾸지도 못하는 다소 무식하고 촌스런 여자로 그려지기에 그러하다. 하지만 景雪蔭과 汪希眠 부인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景雪蔭은 아버지가 城長인 어마어마한 집안의 딸로서 유명인사가 된 莊之蝶에 대적할 만큼의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여성이고, 汪希眠의 부인 역시 문화적 소양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세련미까지 갖춘, 무엇보다 莊之蝶보다 더 잘나가는 화가 汪希眠의 아내인 것이다.

《廢都》는 이 여섯 여인과 莊之蝶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소설의 시작은 다소 의아하다.

1980년대 서경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절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이 복잡한 마음에 양귀비 묘로 참배를 갔는데, 여행객들이 하나같이 모두 묘지의 흙을 담아 품에 안고 가는 것이었다. 궁금증이 생겨 물어본 즉, 양귀비는 절세가인인지라 이 흙을 가지고 가 화분에 뿌리면 꽃이 정말로 아름답게 핀다는 것이었다. 그 즉시 이 두 사람도 제법 많은 양의 흙을 파서 옷에다 싸가지고 왔고, 오래된 검은색 도기화분에 담아놓고서 좋은 꽃씨가 생기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이 지나자 화분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한 달도 안 돼 무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특별한 식물인지 그 품종을 아는 사람이 없어 孕璜寺의 화공(花工)에게 물어볼 요량으로 화분을 안고서 도시에 있는 잉황사를 찾아갔지만 화공 역시 알지 못했다. 때마침 지선(智禪)스님이 지나가고 있어 물어보니 스님 역시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스님께서서는 점을 잘 치신다고 들었는데 이 식물에서 장

차 몇 송이의 꽃이 피게 될 지 여쭙어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다른 한 사람에게 글자 한자를 말해보라고 했고 그 사람은 화공이 들고 있던 가위를 보고서 그냥 귀‘耳’자를 말해버렸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기이한 꽃 네 송이가 필 것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죽게 될 걸세.” 과연 스님의 예언대로 꽃이 피었고, 그 형태가 목란 같기도 하고 장미 같기도 했다. 더욱이 송이송이 꽃술의 색깔이 붉은 색, 노란색, 흰색, 자주색인 것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一千九百八十年间, 西京城里出了桩异事, 两个关系是死死的朋友, 一日活得泼烦, 去了唐妃杨玉环的墓地凭吊, 见许多游人都抓了一包坟丘的土携在怀里, 甚感疑惑, 询问了, 才知贵妃是绝代佳人, 这土拿回去撒入花盆, 花就十分鲜艳, 这二人遂也刨了许多, 用衣包回, 装在一只收藏了多年的黑陶盆里, 只待有了好的花籽来种. 没想, 数天后, 盆里兀自生出綠芽, 月内长大, 竟蓬蓬勃勃了一丛. 但这草木特别, 无人能识得品类, 抱了去城中孕璜寺的老花工请教, 花工也是不识. 恰有智禅大师经过, 又请教大师, 大师还是摇头, 其中一人却说: “常闻大师能卜封预测, 不妨占这花将来能开几枝?” 大师命另一人取一个字来, 那人适持花工的剪刀在手, 随口划出个“耳”字. 大师说法: “花是奇花, 当开四枝, 但其景不久, 必为尔所残也.” 后花开果然如数, 但形状类似牡丹, 又类似玫瑰. 且一枝蕊为红色, 一枝蕊为黄色, 一枝蕊为白色, 一枝蕊为紫色, 极尽娇美.<sup>1)</sup>

위의 인용문으로 소설은 시작되고, 기이한 꽃들은 스님의 예언대로 결국 죽게 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꽃을 너무도 애지중지한 나머지, 꽃들도 자기처럼 목이 마를 거란 생각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죽게 만드는 것이다. 후에 꽃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莊之蝶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궁금중이 생겨난다. 그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여섯 명인데 꽃은 왜 하필 네 송이만 피었을까. 그리고 이 네 송이의 꽃이 상징하는 것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1) 賈平凹, 《廢都》, 北京出版社, 北京, 1993, 1-2쪽.

## 2. 욕망의 대상-牛月淸, 唐婉兒, 阿燦, 柳月

牛月淸을 비롯한 唐婉兒, 阿燦, 柳月은 묘하게 닮아있으면서 또 연결되어 있다. 이름에 똑같이 달 ‘月’이 들어가 있는 牛月淸과 柳月, 唐나라 唐이라는 성을 가진 唐婉兒와 唐나라 시녀상을 꼭 빼닮은 柳月, 신출귀몰한 奇人을 증조부로 둔 牛月淸과 사타구니에서 알 수 없는 奇異한 향내를 뿜어내는 阿燦, 점이 똑같이 두 개인 唐婉兒와 柳月, 여러 명이 찍힌 사진에서 똑같이 머리만 사라진 牛月淸과 唐婉兒, 그리고 전생에 牛月淸의 할아버지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였던 柳月 등등. 그런데 무엇보다 이 네 여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주인공 莊之蝶의 사랑을 받았고 또 실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莊之蝶의 욕망의 대상이었고 현실 속에서 그 욕망을 채워주었던 여인들이라 할 수 있다. 허나, 莊之蝶은 그 어느 여성에게도 정착하지 못한 채 唐婉兒, 阿燦, 柳月과 차례로 정사를 즐긴다.

그런데 그의 사랑을 받았던 이 네 여인의 최후는 비극적이다. 唐婉兒는 남편에게 붙잡혀가 집안에 갇혀 성적 학대를 받으며 살게 되고, 柳月은 소아마비 장애인에게 시집가며, 阿燦과 牛月淸 역시 莊之蝶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소설의 말미에 나오는 과다한 수음으로 죽은 여인과 내장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괴물 같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기사를 통해, 이 기사的主人公이 각각 牛月淸과 阿燦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나아가 이 여인들의 비극은 莊之蝶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소설 곳곳에 이들의 비극이 莊之蝶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당신은 나와 唐婉兒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우리는 새로운 삶

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과정 속에서,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이미지와 명예도 나아가 큰 언니(牛月淸·인용자)와 이 가정까지도 파멸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莊之蝶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의 핵심을 불현듯 깨달았다. 是你把我, 唐宛兒都创造成了一个新人, 使我们产生了新的生活的勇气和自信, 但你最后却又把我们毁灭了! 而你在毁灭我们的过程中, 你也毁灭了你, 毁灭了你的形象和声誉, 毁灭了大姐和这个家! 庄之蝶听了, 猛地醒悟了自己长久以来苦闷的根蒂.<sup>2)</sup>

阿燦 역시 이와 동일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알려짐으로써 莊之蝶에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미련을 가지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이한 꽃의 운명과 이 네 여인들의 운명은 너무도 동일하다. 莊之蝶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파멸하게 되는 동일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기이한 꽃과 이 네 여인들 사이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예민한 사람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피어나는 기이한 꽃처럼, 이 네 명의 여인들 역시 당대 현실 속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 현실적 삶에서 저만치 빗겨나 있기도 하다. 태생적으로 기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牛月淸과 사타구니에서 기이한 향내를 뿜어내는 阿燦,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한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더군다나 유명인사의 부인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의 세련된 외모와 문화적 소양을 갖춘 唐婉兒와 柳月,<sup>3)</sup> 이들은 모두 현실에

2) 賈平凹, 앞의 책, 460쪽.

3) 이는 농촌에서 올라와 소꿉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劉씨 아주머니의 고단한 삶과

서는 찾기 힘든 여인들인 것이다.

이처럼 莊之蝶과 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속성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비현실성 및 그것들 사이의 유사성, 그리고 그러한 욕망의 추구에 내재된 필연성(비극성)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현실(realité)은 상징계로 질서 지어져 있다. 즉, “상징계적 분절을 통해서만 지각은 현실의 특성을 획득한다.”(Lacan, 1966, 392면) 그렇다면 이 상징계 안에서 욕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욕망이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인 대상 a이다. 그러나 대상 a는, 비유컨대 칸트(I. Kant)의 물자체가 현상계 안에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상징계 안에서 어떤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없다. 실재 혹은 대상 a는 오로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즉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면 “빈집(la case vide), 빈 선반(l'étagère vide), 빈 단어(le mot blanc)”(Deleuze, 1969, 59면)로서만 상징계 안에 나타난다. 상징계 안에는 이 대상 a가 자리를 차지할 기표가 없으므로 그것은 “집 없는 거주자(Deleuze, 1969, 56면)” 혹은 ‘빈 칸’ 신세이다. 욕망은 본성상 이 대상 a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 숙명적으로 이 대상 a는 이처럼 상징계 안에 결핍되어 있다. “기표는 (...) 본성상 [실재 혹은 대상 a의] 결핍만을 드러내는 상징이다.”(Lacan, 1966, 24면) 따라서 욕망이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이 대상 a의 ‘모방(mimétisme)’이거나 ‘대체물’일 뿐이며 (Lacan, 1973, 8장 참조), 따라서 욕망은 그 모방품을 소유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의 결핍과 불만족에서 오는 갈증에 허덕일 뿐이다. 가령 시각적 욕망의 항상적 불만은, 상징계 안에서 “내가 보는 것은 결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숙명적인 사실 때문이다(Lacan, 1973, 95면). 이 갈증의 불은 니르바나(Nirvana)를 통해

---

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상 a를 거머쥌 때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욕망은 대상 a를 모방(대체)하고 있는 상징계의 한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덧없는 여행을 계속할 뿐이다. '상상적인 것'만이 자리를 바꾸며 실재계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라캉이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Lacan, 1966, 25면 참조). 실재계는 고정되어 있으며, 이 실재계에 도달하려는 욕망의 끊임없는 방향에 따라, 대상 a의 빈 칸을 채우기 위해 상징계의 대체물들만이 계속 입각과 실각의 자리바꿈을 되풀이하는 것이다.<sup>4)</sup>

그렇다. 상징계적 질서로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 욕망은 숙명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이고, 인간은 그러한 욕망을 채우는 듯 보이지만 그 채움에는 근원적 결핍이 존재한다. “욕망의 대상은 결코 우리가 바라던 대상”<sup>5)</sup>이 아니고, 그것은 기껏해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의 ‘대체물’ ‘모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소유 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갈증’과 ‘불만족’으로 욕망의 끊임없는 자리바꿈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莊之蝶이 ‘진짜 원하는 것(대상 a)’은 무엇이란 말인가.

### 3. 욕망의 근원-景雪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莊之蝶에게는 첫사랑이 있었고, 이 첫사랑과의 과거를 둘러싼 재판 이야기가 소설을 끌여가는 또 하나의 동력이다. 그런데 첫사랑 그녀는 지금까지의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성으로 그려진

4) 서동욱, <라캉과 들뢰즈>, 《라캉의 재탄생》, 김상환·홍준기 엮음, 창작과 비평사, 서울, 2002, 421-422쪽.

5) 엘리자베스 라이트, 《무의식의 시학》, 김종수·김아영 옮김, 인간사랑, 경기, 2002, 117쪽.

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보기 드문 미모를 갖춘 위의 네 여성들과는 달리, 景雪蔭은 얼굴은 별 볼 일 없지만 고위간부의 딸다운 당당함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더군다나 여태 자존심 한 번 구겨본 적도 없는 도도한 여성인 것이다.<sup>6)</sup> 그리고 莊之蝶은 이런 그녀를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토록 평생 잊을 수 없었던 景雪蔭은 그야말로 그의 긴 인생여정에서의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비상식량과도 같았다. 尤其令他终生难忘的景雪荫, 现在回想起来, 那简直是他人生长途上的一袋干粮, 永远咀嚼不完的.<sup>7)</sup>

그랬다. 景雪蔭과의 관계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녀는 莊之蝶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녀였지만 결혼이후 莊之蝶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난 적이 없기에 그와 그녀사이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周敏의 등장으로 그와 그녀의 과거사가 붙어지기 시작한다. 唐婉兒의 情夫였던 周敏이 직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莊之蝶의 과거에 대한 기사를 잡지에 게재했기 때문인데, 周敏은 고향에 떠도는 莊之蝶에 대한 풍문<sup>8)</sup>과 西安에 있는 莊之蝶의 지인들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던 것이다. 기사 내용 중 景雪蔭과 관련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처럼 서술된 기사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景雪蔭은 周敏을 비롯한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게 되는데, 당연히 莊之蝶도 여기에 연루된다. 게다가 고발을 당한 사람들 중

6) “那女人不仅仅是有个风采的, 而且能量很大的角色儿, … 再是高干子, 一向妥当, 从没受过什么委屈” 賈平凹, 앞의 책, 305쪽.

7) 賈平凹, 앞의 책, 67쪽.

8) 周敏은 莊之蝶과 같은 고향 출신이다.



景雪蔭에 대적할 만큼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莊之蝶 밖에 없었기에 재판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와 景雪蔭의 대결구도로 진행되고, 莊之蝶은 재판의 승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판의 당사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莊之蝶과 景雪蔭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莊之蝶이 그녀를 피한다. 그는 마땅히 참석해야만 하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景雪蔭과 그 자리에서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재판 전날 돌연 친구인 孟雲房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하고서 당일 날 하릴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이다.

莊之蝶이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네. 나는 가고 싶지가 않아. 내가 자네를 오게 한 것도 나 대신 가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네.” “나더러 대신 가 달라고? 당치도 않지. 대리 출석하려면 법정에 동의를 구해야 하고 또 위임장도 작성해야 하는데.” 孟雲房은 말했다. … 이틀 날 동이 터를 무렵 莊之蝶은 孟雲房에게 몇 마디 당부를 하고서 조용히 집을 나섰다. …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로서는 어디를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莊之蝶說: “我想告诉你, 我不想去. 我找你来, 主要是让你代我去.” 孟云房说: “让我代理? 那怎么行? 法庭上代理要通过法庭同意, 还要填代理书的.” … 翌日, 天麻麻亮, 莊之蝶起来叮咛孟云房几句, 就一人悄然出门…. 莊之蝶从未起过这么早, 也不知要往哪里去.<sup>9)</sup>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과거 그와 景雪蔭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 일들에 대해 그 누구도 언급하거나 회상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는 끝내 莊之蝶의 첫사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소설에는 莊之蝶의 과거 연애사에 관련된 구체적 이야기를 孟雲房의 아내 夏捷이 周敏에

9) 賈平凹, 앞의 책, 346쪽.

게 들려주었다는 내용만 나올 뿐,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는지에 대한 것은 없고, 또 周敏이 쓴 기사 가운데 莊之蝶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사는, 周敏의 글을 읽고 있던 독자의 입을 통해 또 莊之蝶이 직접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감으로써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서술되지만, 景雪蔭과 관련된 것은 딱 한 문장으로 일축되는 것이다.

莊之蝶은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연애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莊之蝶이 작은 잡지사에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의 모 여성과 죽자 사자 달라붙어 지냈지만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다 결국에는 결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庄之蝶再往下看, 便到了庄之蝶的恋爱故事, 竟出现了庄之蝶当年还在一个小杂志社工作时如何同本单位的—位女性情投意合, 如漆如胶, 又如何阴差阳错未能最后成为夫妻.<sup>10)</sup>

소설을 통해 莊之蝶과 景雪蔭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연애할 당시 莊之蝶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것과, 그와 그녀가 잘 지낸 것은 사실이나 머리털 하나 건드린 적도 없고 심지어 일상적인 악수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당시 그녀에게 한 사랑의 시도가 지금까지도 그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든다는 것<sup>11)</sup> 정도에 불과하다.

그날 밤 院知非의 경험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었지만, 景雪蔭을 향한 그 때의 시도가 그를 또 한 차례 두렵게 만들었다. 院知非那夜的经验为使他百般鼓着勇敢, 但当年对待景雪蔭的实践又一次使他胆怯了.

10) 賈平凹, 앞의 책, 65쪽.

11) 胆怯: 胆小, 害怕. <http://www.nciku.cn/search/cc/detail/%E8%83%86%E6%80%AF/36869>.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莊之蝶은 景雪蔭과 헤어진 뒤에도 여전히 그녀를 가슴에 담아두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마음에 간직해온 그녀와의 만남을 이상하게도 그는 피한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사랑의 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두렵게 만들지만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끝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는 ‘대상 a’가 가진 특질에 다름 아니다. ‘모사물’이나 ‘대체물’이 아닌 ‘진짜 원하는 것’인 ‘대상 a’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현존하지 않는 것, 다만 효과를 미치는 속성으로서만 ‘있는 것’”이기에 “언제나 말할 수 없는 것, 상징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 기록의 잔여, 그러므로 실재적인 것”이고, “이 대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때 일어나는 충격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주체는 욕망의 원인인 ‘대상 a’에 “가까이 가면서 동시에 그 직접적 접촉을 미룬다.”<sup>12)</sup> 그리고 이 ‘대상 a’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후적’으로만 재구성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그 재구성 안에는 주체의 환상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는 ‘이미 끝나버린’ 景雪蔭과의 일이 ‘나중에’ 莊之蝶의 또 하나의 자아라 할 수 있는 周敏의 기사를 통해, 즉 완전히 거짓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의 기사를 통해서만 모호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글에 묘사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周敏은 대체 어디에서 자료를 입수한 거지? 每一宗事似乎都有影子, 又完全不是现在所写的样子, 周敏是从哪儿得到的材料呢?<sup>13)</sup>

12) 김상환, <라깡과 데리다>, 《라깡의 재탄생》, 529-530쪽.

13) 賈平凹, 앞의 책, 66쪽.

그런데 ‘대상 a’는 거세충동과 연관이 있기도 하다.

“당신 그녀를 떠올린 거죠? 나를 그녀로 생각한 거예요?” 莊之蝶에게선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격렬하던 몸짓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런데 莊之蝶이 생각한 여인은 牛月淸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景雪蔭을 생각하기도 했다. 이 순간 왜 하필 그녀들이 생각났는지, 또 唐婉兒에게는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서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는 침대를 짚고서, 그녀의 얼굴도 그녀의 눈도 보지 않은 채 뒤에서 고통스러운... □□□□. 그곳에는 여전히 침을 하면서도 느린 장송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래로 시선을 옮기니 그의 물건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녀가 - 인용자)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당신 그거는...?” 莊之蝶은 침착하게 말했다. “잘라버렸어.” 說：“你在想起她了吗？你把我当她吗？” 莊之蝶沒有作聲，急促里稍微頓了一下，婦人是感覺到了。但莊之蝶想到不仅牛月淸，也想到是景雪蔭，這瞬間裏他無法說清为什么要对唐宛儿这样？经她这么说了，他竟更是发疯般地将她翻过身来，让双手掌在床上，不看她的脸，不看她<sup>14)</sup>的眼睛，楞头闷脑地从后边去□□□□…。深沉低缓的爱了还在继续地流泻…。目光往下看，他那一根东西却没有了，忽地坐起来，說：“你那...?” 莊之蝶平静地说：“我把它割了。”<sup>15)</sup>

唐婉兒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莊之蝶에게 아내인 牛月淸이 떠오른 것은 당연하다. 그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고, 죄책감이라는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景雪蔭은 왜 함께 떠오른 것일까. 이는 牛月淸과 景雪蔭의 유사성, 즉 景雪蔭 역시 莊之蝶의 죄책감과 거세충동

14) 他를 문맥상 她로 바꿈.

15) 賈平凹, 앞의 책, 259쪽.

에 일정정도 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의 정체가 다음 인용문을 통해 확실히 드러난다.

그 자리에서 尸자를 썼다. 신기하게도 모래판 위에 시 한 수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에 놀라 莊之蝶은 눈을 번쩍 떴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전쟁영화가 방영되고 있었고 자신이 방금 꿈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꿈에서 깨면 바로 잊어버리는 이전의 꿈과는 달리, 모래판 위의 그 시가 너무도 정확히 기억이 났다. “서면 사미의 합장이요, 앉으면 연꽃의 꽃잎이라. 이놈아, 까불지 말거라. 바로 니가 나온 곳이니라.” 当下写一个“尸”字。不想沙盘上果真出现了一首诗来，真惊得他啊地叫了一声。这一声惊叫，莊子蝶猛地睁开了眼，又分明看见电视里还在播映着一部枪战片，知道自己刚才是做梦的。但莊子蝶以前做梦醒来从记不清梦境的事，现在竟清清楚楚记得那沙盘上的诗句是：“站是沙彌合掌，座是蓮花瓣開，小子別再作乖，是你的出身所在。”<sup>16)</sup>

‘사미’의 ‘합장한 손’과 ‘연꽃’을 닮은 것이자 장지접이 나온 곳이 바로 ‘尸’라.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尸’는 ‘이미 죽은 것’이고, 莊之蝶이 나온 곳은 어머니일 터이다. 그리고 ‘이미 죽은 것’과 어머니는 성적 금기를 수행하는 ‘사미’의 ‘합장한 손’과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의 상징인 ‘연꽃’을 닮아 있다. 현존하지 않지만 그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어머니와 성적 금기. 이는 거세 콤플렉스를 압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거세 콤플렉스는 “어머니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아버지가 응징하기 위해 자기를 거세할지도 모른다는 아이의 현실적이면서도 억압된 공

16) 賈平凹, 앞의 책, 513쪽.

포”<sup>17)</sup>로, 아이는 “필연적인 금지명령”<sup>18)</sup>인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한 만족을 주는 어머니라는 대상”<sup>19)</sup>을 포기하게 된다. 즉 “상징적 거세”<sup>20)</sup>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욕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욕망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발생된다. 그런데 사실, 완벽한 만족을 주는 어머니란 실제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언어의 질서 속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금지된”<sup>21)</sup> 어머니는 “영원히 상실된 대상(尸)”일 뿐이고, ‘완벽한 만족을 주는 어머니라는 대상은 아이의 환상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 없이 인간은 상징계를 살아낼 수가 없다. 즉, 상징계적 질서를 받아들인 주체는 “자신의 존재결여를 메워줄 대상을 항상 필요로 하”<sup>22)</sup>고, 완벽한 만족을 주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유지해야만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찾아 헤맬 수 있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그 대상 때문에 발생하고 그 대상으로 인해 끝없이 움직이는 것”이 “욕망”<sup>23)</sup>이기에, 어머니라는 대상은 “주체를 욕망의 장으로 유혹”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sup>24)</sup> “만족의 결여” “빈곳을 채우는 구실”<sup>25)</sup>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莊之蝶에게 ‘대상 a’로 작용하는 景雪蔭은 이미 사라져 없

17) 데이비드 스텐포드 클라크,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옮김, 푸른숲, 서울, 1997, 119쪽.

18) 홍준기, 〈자끄 라캉, 프로이트로의 복귀〉, 《라캉의 재탄생》, 53쪽.

19) 홍준기, 앞의 글, 앞의 책, 49쪽.

20) 홍준기, 앞의 글, 앞의 책, 56쪽.

21) 홍준기, 앞의 글, 앞의 책, 86쪽.

22) 홍준기, 앞의 글, 앞의 책, 99쪽.

23) 김상환, 〈라캉과 데리다〉, 앞의 책, 529쪽.

24) 홍준기, 앞의 글, 앞의 책, 84쪽.

25) 홍준기, 〈라캉과 프로이트 · 키에르케고르〉, 앞의 책, 205쪽.

어졌으나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머니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모든 간행물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을 게재한 후, 호화로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집으로 쳐들어온 하객들 때문에 밤이 되어도 소란스러움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모든 하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들어가 침실 문을 잠갔다…… 그는 그녀의 성욕을 불러일으키고 나서야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이어 손으로, 깃털로, 또 혀끝으로 그녀의 온몸을 애무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격렬한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듯 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만지며 계속 흥분시켰고, 그녀의 가장 민감한 그 부위를 웃으며 건드리고 있었다. 전율하듯 신음하고 있는 그녀의 그 곳에서 드디어 진한 액체가 뿜어져 나오자 그는 그녀의 배에다 손가락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깨끗해졌고, 그는 침대 아래에 미리 준비해 놓은 깨진 기와를 들어 가볍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응접실로 나와 아직까지 그 곳에 있던 하객들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景雪蔭은 정식으로 이혼한 사이임을 선포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이 선언이 나오고 있었다. 他就在所有的报刊上刊登他们要结婚的启事, 然后他们又在豪华的宾馆里举行了结婚典礼, 等晚上热烈地闹过了洞房, 他却不让所有的来走散, 先自把洞房门关了……他把她性欲调动起来, 脱光了衣服躺在床上, 他开始在抚摩她的全身, 用手, 用羽毛, 用口舌, 她激动得无法遏制, 他却还在揉搓她, 撩乱她, 一边笑着, 一边拈那一点最敏感的东西, 他终于在她的淫声颤语里看见了有一股泛着泡沫的汁水涌出了那一丝绵绣的毛, 他便把指头在那小肚皮上蹭蹭, 蹭干净了, 捻起了早准备好放在床下的一片破瓦, 轻轻盖了, 穿衣走出去. 他在客厅里大声地向尚未走散的客人庄严宣告: 我与景雪蔭从此时起, 正式解除婚约! 而且电视上也立即播放了这一声明.<sup>26)</sup>

莊之蝶은 환상 속에서 금기된 것이자 영원히 상실된 대상을 결국 얻게

26) 賈平凹, 앞의 책, 516쪽.

된다. ‘필연적인 금지 명령’을 어기고서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간 것이다. 허나, 그 곳에서 그는 그녀 역시 자신을 욕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자신의 결여를 완전히 채워 주리라 여겼던 그녀 역시 존재결여에 시달리고 있음을 말이다. 금기를 어기고 힘겹게 도달한 그 곳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결여를 보충해줄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은 없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莊之蝶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말<sup>27)</sup>을 남긴 채 西京을 떠나기 위해 기차역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의 옆을 지키고 있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周敏이다.

#### 4. 汪希眠 부인과 周敏

周敏은 莊之蝶에게 현실의 저편을 향한 충동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자 그가 금기를 넘어서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이다. 성벽 위에서 들려온 周敏의 도훈 소리는 莊之蝶을 신비스러우면서도(神秘) 공포스러운(恐懼) 태고의 세계(洪荒之中)로 이끌었고,<sup>28)</sup> 景雪蔭 남편의 다리를 부러뜨려 장애인으로 만들(斷腿殘廢)<sup>29)</sup>으로써 그녀를 향한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 준 이도 周敏이었다.

(주민은 - 인용자) 다리를 들어 약해빠진 발목을 꼭 밟아버렸다. ‘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적어도 골절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는

27) 賈平凹, 앞의 책, 516쪽 “마침내 그는 크게 웃어 젖혔다. ‘난 나의 임무를 완성했다고!’(他终于大笑: 我完成我的任务了!)”

28) 賈平凹, 앞의 책, 111쪽.

29) 賈平凹, 앞의 책, 515쪽.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抬起脚来, 照着瘦瘦的一条小腿脖子踩去, 听得咯吧一声, 知道起码是崩折了, 骑车飞一般驶去.<sup>30)</sup>

그리고 소설을 끌여가는 큰 사건들 역시 모두 周敏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周敏이 쓴 글 때문에 莊之蝶은 景雪蔭과의 송사에 휘말리고, 또 초대 를 받고 간 周敏의 집에서 첫 밀회대상인 唐婉兒를 만나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西京이라는 ‘도시’에서 누구보다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莊之蝶과는 달리 周敏은 도시의 ‘무호구자’, ‘유랑민’<sup>31)</sup>에 불과하다. 도시의 그 어느 곳에도 합법적인 그의 자리는 없는 것이다. 허나 그는 분명 西京이라는 도시에 존재한다. 라캉이 말한 바의 도서관에는 있지만 제 자리에 꽂혀 있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책처럼, 그는 상징계적 질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분명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 ‘실재’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莊之蝶이 “상징계 안에서 기표로 대리되고 거기서 의미를 얻는 ‘사유의 주체’”라면, 周敏은 “기표로 대리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의 주체’”<sup>32)</sup>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징계로

30) 賈平凹, 앞의 책, 505쪽.

31) 중국 정부는 戶口에 의해 전 국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구분했으며, 정해진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戶口란 시민권 제한 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적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戶口의 변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農民工은 도시에서 거주하지만 도시호구(시민권)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해외 이민자처럼 법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도시생활을 한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도시로 이동한 農民工들은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받게 된다. 이런 자국민에 대한 지역차별은 農民工이 도시에 적응하여 시민으로 동화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민자, 〈中國의 시민권 제한 정책과 農民工의 同化: 北京과 珠江三角洲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35집 3호, 2001, 280쪽.

32) 김상환, 〈라캉과 데카르트〉, 《라캉의 재탄생》, 163쪽.

의 진입과 동시에 “의미(언어·사유)의 주체”와 “존재의 주체”로 “분열”<sup>33)</sup>되어 ‘존재(실재)’의 사라짐(소외)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점에서 莊之蝶과 周敏은 동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莊之蝶은 끝내 죽는다. 상징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은폐 혹은 억압되어야만 하는 周敏의 등장이 莊之蝶을 상징적 죽음으로 이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차역에 홀로 남겨진 周敏은 어떻게 될까. 상징계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만 하기에 周敏은 상징계 속에서 자신의 기표를 찾게 될 터이고 ‘실재’로서의 ‘周敏의 존재’는 다시 은폐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무슨 말을 하려는 듯 周敏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다.

周敏은 대합실 유리창을 있는 힘껏 두드렸다. 유리창이 깨지며 박힌 유리조각에 피가 흘러나왔다. 피는 마치 아지랑이처럼 금이 간 유리 사이로 흘러내렸고, 피 묻은 유리창 너머 텅만 좁은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노인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수척해진 한 여인이 피 묻은 유리창 저쪽 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얇은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汪希眠 부인이라는 것을 周敏은 한눈에 알아챘다. 周敏就使劲地拍候车室的窗玻璃, 玻璃就拍破了, 他的手扎出了血, 血顺着已有了裂纹红蚯蚓一般地往下流, 他从血里看见收破烂的老头并没有听见他的呐喊和召唤, 而一个瘦瘦的女人脸贴在血的那面, 单薄的嘴唇在翕动着. 周敏认清她是汪希眠的老婆.<sup>34)</sup>

그랬다. 周敏 앞에 서있는 그녀는 바로 장지접이 끝내 가지지 못했던 여인, 汪希眠 부인이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소설에서는 끝내 汪希眠 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결혼의 유무와

33) 김상환, 앞의 글, 앞의 책, 162쪽.

34) 賈平凹, 앞의 책, 518쪽.

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그 어디  
서도 그녀의 이름을 찾아낼 수가 없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그녀의  
부탁<sup>35)</sup>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도 불러주지 않는 것  
이다. 이는 ‘그녀’라는 존재가 ‘汪希眠 부인’이라는 기표로 고정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고정이 우연적이라는 것, 즉 ‘汪希眠의 부인’이라는 기  
표를 차지할 수 있는 여인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렇기에 그녀가 하고자 했던 말은 “말해지는 내용 혹은 대상에 고정된 의  
미”<sup>36)</sup>가 있어 “조화로운 전체”<sup>37)</sup>로 보이는 상징계란 ‘허구(거짓)’임을 잊지  
말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莊之蝶의 깨달음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가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것, ‘욕망의 대상’이라는 기표를 꼭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 환상적인 것, 상징계를 살기 위해 스스로가 만들  
어낸 허구였기에, 자신이 사랑했던 牛月淸도, 唐婉兒도, 그리고 阿燦, 柳月  
도 진짜가 아닌 ‘가짜’ ‘대체물’ ‘모사물’일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그는 깨달  
은 것이다. 그렇기에 汪希眠 부인과 莊之蝶은 서로가 성적 대상인 동시에  
우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莊之蝶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뿐 아니라<sup>38)</sup> 그의  
육체적 고통을 대신하는 여인이 바로 汪希眠 부인이니 말이다.

여인은 말했다. “그제 아침 등 쪽에 통증을 느껴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보모더러 와서 보라고 했지요. 종기 몇 개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심하게 아파오기 시

35) “소개하려면 나 개인을 소개해줘요. 난 정말 왕희면 덕을 보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要介绍就介绍我, 我可沾汪希眠的光).” 賈平凹, 앞의 책, 93-34쪽.

36) 홍준기, <자끄 라캉, 프로이트로의 복귀>, 앞의 책, 67쪽.

37) 홍준기, 앞의 글, 앞의 책, 72쪽.

38) 莊之蝶의 돈을 원하는 牛月淸, 唐婉兒, 阿燦, 柳月과는 달리 汪希眠 부인은 莊之蝶  
에게 돈을 빌려준다.

작하더니 온 등이 툭툭 부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 장지접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대답했고, 다시 말을 이었다. “거 참 희한하단 말야. 내 등에도 종기 몇 개가 났어요. 그런데 난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데 어째 당신만 이렇게 심하지?” ... 장지접은 옷을 벗어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의 등에 난 일곱 개의 종기를 똑똑히 보았고, 그 모양이 마치 복두칠성 같았다. 女人說：“前日清早起來，覺得背上疼，讓保母來看了，說是出了幾個瘡疔，我並不在意。不想昨夜就疼得厲害，整個脊背都成了硬的！...” ... 莊之蝶說不渴的，說：“這也是怪事，我背上也是出了瘡疔的，但卻不痛不癢，你的倒這般厲害？” ... 莊之蝶就解上了衣讓她看，女人果然看見他背上有七顆瘡疔，形狀如七頭星勺的。<sup>39)</sup>

이런 汪希眠 부인과 다시 만난 周敏, 周敏은 또한 다시 태어난 莊之蝶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莊之蝶이 끝내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인 ‘汪希眠의 아내’와 상징계를 다시 살아야만 하는 周敏의 만남으로 소설이 끝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그는 牛月淸 · 唐婉兒 · 阿燦 · 柳月에게 이어 다시 그녀를 욕망할 것이다.<sup>40)</sup> 더욱이 西安의 4대 문화인 중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킨 ‘汪希眠’을 남편으로 둔 그녀이기에 그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점점 더 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욕망의 속성이니 말이다.<sup>41)</sup> 허나, 깨달음 이후의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함께 공유한 사람과의 사랑인 만큼 그 사랑의 양상

39) 賈平凹, 앞의 책, 296쪽.

40) 이 여인(汪希眠 부인-인용자)을 牛月淸과 비교해보고 唐婉兒와도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柳月과도 비교했다. 서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욕제충동을 느꼈고 아랫도리가 곳곳하게 섰다(竟把這女人與牛月淸比較, 與唐婉兒比較, 與柳月比較. 三比較兩比較, 身上憋得難受, 下邊就直挺挺地豎起來), 賈平凹, 앞의 책, 197쪽.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汪希眠의 부인 역시 牛月淸, 唐婉兒, 柳月과 같은 질서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욕망의 목적은 그 자신이다. 욕망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고착되지 않고 더 큰 욕망을 추구할 뿐이다.” 브루스 핑크, 《라캉과 정신의학》, 명정현 옮김, 민음사, 서울, 2002, 57쪽.

은 달라질 것이다.

## 참고문헌

- 賈平凹, 《廢都》, 北京出版社, 北京, 1993.
- 賈平凹, 《폐도 상》, 박하정 옮김, 일요신문사, 서울, 1994.
- 賈平凹, 《폐도 중》, 박하정 옮김, 일요신문사, 서울, 1994.
- 賈平凹, 《폐도 하》, 박하정 옮김, 일요신문사, 서울, 1994.
-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서울, 2002.
- 브루스 핑크,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서울, 2002.
- 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서울, 2010.
- 홍준기, 《라캉과 현대철학》,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99.
- 엘리자베스 라이트, 《무의식의 시학》, 김종수·김아영 옮김, 인간사랑, 경기, 2002.
- 장영란 외,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광사, 서울, 1999.
- 마단 사렘, 《알기 쉬운 자크 라캉》, 김해수 옮김, 백의, 서울, 1994.
- 전경갑, 《욕망의 통제와 탈주》, 한길사, 서울, 1999.
- 나지오, 《자크 라캉의 이론에 대한 다섯 편의 강의》, 임진수 옮김, 교문사, 서울, 2000.
- 장 라플랑슈·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정신분석사전》, 다니엘 라가슈 감수, 임진수 옮김, 열린 책들, 서울, 2005.
- 데이비드 스탠포드 클라크,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옮김, 푸른숲, 서울, 1997.
- 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 현대문학, 서울, 2005.